

발간등록번호

2019-06호



2019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집

-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 1:1 교사 수업컨설팅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1:1 교사 수업컨설팅',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컨설팅 제공을 위해 보육·유아교육 관련 대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컨설턴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컨설턴트는 보육현장에 개별적으로 찾아가 교사의 보육활동 및 상호작용, 놀이 지원 과정 등을 직접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향후 개정되는 누리과정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자 '놀이 중심 보육과정 시범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컨설턴트는 온라인컨설팅과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뢰 문제 진단 및 놀이를 관찰하고 보육교직원과 함께 유아의 '진짜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실의 놀이가 변화하였고,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안착과 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본 사례집은 1:1 교사 수업컨설팅,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한 컨설턴트와 보육교직원의 컨설팅 참여 소감을 담아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컨설턴트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홍원자

CONTENTS

놀이 중심 보육과정 시범 어린이집 운영 안내 · 1

시범어린이집 운영 사례

놀이중심? 우리반 아이들은 이미 잘 놀고 있는데?	3
나의 첫 유아 도전기	8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만들어 준 행복의 메아리	13
선생님의 생각이 달라지니~~~ 우리 유아들의 놀이 에너지 뽐뽐!!!	19
만남과 소통, 협의로 깊어진 보육과정의 변화	23
행복한 교실 놀이터를 꿈꾸며	28
컨설팅을 통해 놀이활동 지원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34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컨설팅을 마치고	40

컨설턴트 사례

컨설턴트 방소영	42
컨설턴트 이미나	44
컨설턴트 이미선	46





1:1 교사 수업 컨설팅 사업 안내 • 50

보육교직원 사례

고강1동어린이집	52
고강1동어린이집	54
고다니어린이집	56
시립고색뉴지엄어린이집	57
시립고색뉴지엄어린이집	59
시립그린어린이집	62
시립능동어린이집	63
시립삼봉어린이집	68
시립서부복합어린이집	71
시립오포농평어린이집	74
시립인덕원어린이집	78
해오름어린이집	80
현대트랜시스동탄어린이집	81

컨설턴트 사례

컨설턴트 강혜경	83
컨설턴트 정경미	90



놀이중심 보육과정 시범어린이집 운영 안내

1. 사업목적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목표인 어린이집의 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턴트가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2. 사업 개요

- (대 상)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2020년 본사업 시 경기도 관내 어린이집으로 변경)
- (기 간) 2019년 3월 ~ 12월
- (추진체계)



3. 운영 내용

- **(신청자격)** 관 내 만3~5세 반을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 **(선정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권역별, 규모별 기준에 따라 선정
- **(선정결과)** 선정된 어린이집에 한해 개별 통보
- **(참여특전)** 사업 참여증 수여,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사례 제공, 공모전 참여 및 시상

4. 컨설팅 진행과정 및 내용

컨설팅 진행 과정		주요 내용
1 단계	집합(이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안내 ○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안내 - 놀이 이해 교육
2 단계	온라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상담을 통한 의뢰 문제 확인 ○ 놀이 지원의 어려움 및 컨설팅 계획 협의 ○ 컨설팅 의뢰 문제 및 사유(놀이 및 활동지원) ○ 1차 현장방문 컨설팅 일정 협의
3 단계	1차 현장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활동 및 놀이 지원 관찰 및 진단 ○ 분석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후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2차 현장방문 컨설팅 일정 협의
4 단계	2차 현장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활동 및 놀이 지원 관찰 및 진단 ○ 분석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후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3차 현장방문 컨설팅 일정 협의
5 단계	3차 현장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활동 및 놀이 지원 관찰 및 진단 ○ 분석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후 문제 해결 및 개선 방안 적용 확인 - 자체 개선을 위한 놀이 지원 방안 안내 및 마무리

☞ 총 운영 기간은 3~4개월 소요

놀이중심? 우리반 아이들은 이미 잘 놀고 있는데?

기관명 : 시립우만어린이집

교사명 : 김화평

대상 : 만3세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은 교사 일대일 진행되는 교육이라 해마다 진행하고 있었다. 올해는 “놀이를 중심으로 한 누리과정의 개정”이라는 큰 변화가 있기에 더 욱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또한 보육교직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습관화 된 교직원보다는 자신만의 방법이 습관화 되지 않은 신입교사에게 컨설팅기회를 주어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당교사를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다.

컨설팅 대상교사는 교사회의에서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대상으로 초임교사인 본인을 신청해주셔서 부담스럽지만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

놀이중심교육과정 교육을 처음 집합교육을 받고 난 후 원장이나 해당교사 모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보육교직원 회의에서는 전달교육을 한 후 우리 어린이집처럼 외부공간이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진행 될 수 있을까? 평가인증을 3회나 받은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있는 우리 어린이집에 자유로운 놀이를 접목할 수 있을까?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하루 일과가 이루어지다 보면 안전사고는 어떻게 하지?’, ‘내년 평가인증은?’, ‘과연 변화된 교육과정이 현재 어린이집 상황과 부합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교육을 듣고 컨설팅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생길까?’ 등 부정적이면서 회의적인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담긴 내용의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고 너무나도 많은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혼자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줄 리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는 희망으로 도전을 해보기로 함께 다짐을 하게 되었다.

집합교육 후 온라인 컨설팅으로 교사가 하루 일과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과 보육하는데 있어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대망의 1차 현장방문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컨설팅 당일 아이들과의 상호작용도 더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으나 1시간의 관찰이 끝나고 교수님의 피드백 시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머리를 망치로 ‘뽕!’하고 맞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유아중심의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아이들의 의견과 의사를 먼저 물어봐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사중심, 교사주도의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놀이를 할 때에 놀잇감의 부족, 공간의 부족함 등 아이들이 놀이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었다.

교수님과 놀이에 방해되는 요인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 변화시켜보자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역의 통폐합’이라는 미션을 받게 되었다. 영역의 통폐합 미션을 받고 보육교직원들 간의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평가인증 3회기를 거친 우리들의 생각으로써는 평가인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닐지에 대한 걱정으로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센터, 교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과감하게 영역의 통폐합을 진행하게 되었다.

1차 컨설팅을 마친 후 쌓기영역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이 많아 쌓기영역과 역할영역의 경계를 허물어 통합하였고, 쌓기영역에 있는 블록의 개수를 충분히 늘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구성해주었다. 더불어 유아주도의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발문을 통해 유아의 경험을 이끌어 내주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삼일. 시간이 지나며 해당반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먼저, 공간이 확장되며 놀이의 확장도 함께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유아 간의 갈등이 적어졌고, 역할과 쌓기 영역이 통합되며 연계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주었을 때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간이 확장되고 유아들이 흥미 있어 하는 놀이를 지원해주니 아이들의 행동범위가 커지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졌고, 다른 영

역에 대한 흥미가 적어졌다. 이와 관련된 대처 방안으로 보육교직원회의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유아들 스스로 놀이에 집중 하고 놀이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아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대집단활동 시 위험상황에 대한 화두를 아이들에게 넘겨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마냥 아기라 생각했던 만3세 아이들이 직접 약속한 부분이 있어 아이들도 위험상황을 인지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구분	내용
놀이 지원 방안	<input type="checkbox"/> 제한된 놀이 공간 넓히기 <input type="checkbox"/> 영역 제한 허물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data-bbox="255 1002 975 1029">유아의 수에 비해 블록의 수가 부족하고 협소만 놀이공간에 제한적인 놀이가 진행됨</p>
사례 및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data-bbox="247 1369 981 1453">영역이 통폐합되어 구성물의 크기가 확대됨. 아이들이 블록을 쌓으며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이야기하여 휴식영역에 있는 매트를 접고 언어영역을 휴식영역으로 옮겨 공간을 더욱 확장시킴</p>

구분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data-bbox="247 499 981 555">유아들이 블록을 이어 붙이다가 책상을 벌려 다리를 구성하였음. 이후 다리는 청소기로 변형되어 청소놀이로 확장되어감</p>

2차 방문 컨설팅 시에 교수님께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하시며 유아주도놀이를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2차 컨설팅까지 받고 나니 유아주도놀이가 어떤 것인지 감이 점점 잡혀나갔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또한, 어느 순간 영역을 없애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져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경우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점점 놀이중심에 대해 나만의 생각을 정립해가고 있을 때에 3차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교수님께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보기가 좋았다고 용기를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주셨다.

경기도육아정보센터의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컨설팅”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은 컨설팅 시작 전 걱정과 부담, 두려움이 깨달음과 도전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고, ‘유아중심놀이가 아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지원해주고 존중해준다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아니, 이미 아이들은 잘 놀고 있는데..?’라는 교만한 생각이 ‘아.. 이전에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교사주도의 놀이였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 놀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때로는 지

원해주며 유아중심의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 소중한 기회였다.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경력교사들 또한 여러 회기에 걸친 교사회의와 책을 구입하여 함께 읽어보고 토로하는 등 다양한 고민으로 놀이중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놀이에 대한 중심개념이 정립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우리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2020년 평가인증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제와 놀이중심보육과정을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놀이중심교육과정이 우리 어린이집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 하여 좋은 결과를 찾고자 한다.

나의 첫 유아 도전기

기관명 : 하랑키즈어린이집

교사명 : 신민지

대상 : 만3세

이번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컨설팅을 신청한 000 교사입니다. 저는 영아반 교사만 하다가 이번에 첫 만3세 유아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아인 듯 유아인 듯 아이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저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될까 또 아이들의 무궁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 영아반을 맡았을 때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컨설팅 교육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아 이번에도 유아반 놀이중심의 컨설팅 교육이 있다고 하여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또 저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컨설팅이 되었을 때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교수님께서 방문하시기 전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여쭙어 보셨고 또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고민은 아이들마다 개성이 강하여 관찰하는데 한계가 느껴졌고,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걸 부모님들께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뇌리 속에 있었고, 또 대·소집단 활동을 할 때도 유아들의 생각을 진심으로 이끌어 내고 싶다 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또한 이런 고민들을 토대로 1차 방문 때 직접 관찰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저 또한 그때까지 아이들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활동을 이끌어 내고 놀이중심으로 변화 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1차 방문의 날이 되었고 오전활동을 살펴보셨을 때 첫 피드백으로 자유 놀이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하기 보다는 교사의 개입이 많고, 교사중심으로 놀이가 이루어지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한발 뒤로 물러서서 아이들의 놀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여 그에

맞는, 놀이성 관찰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놀이 시 또래와의 협력, 친구와 서로 결과물을 나누어 보여주기, 또래와의 접촉 등을 나타내는 주도적 참여성과 유아의 융통성, 독창성을 나타내는 인지적 융통성, 아이들이 놀이할 때 나타내는 즐거움의 표현, 자발적으로 놀이를 하는지에 대한 관찰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건 교사가 가진 사고방식이나 놀이방법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구조화되고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놀이를 통해, 놀이에서 얻어지고 스스로 자발성, 자율성,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스스로 얻어지는 뿌듯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끝없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피드백을 받은 대로 아이들이 자유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을 중시하였습니다. 자유놀이 시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반 친구들의 반 이상이 블록만 꺼내서 꺼낸 블록으로만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놀잇감을 섞어 놀이를 한다거나 더 이상의 확장이 쉽게 되지 않고 블록으로 팽이만 만들어서 돌린다거나 친구와 대결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활발하게 놀잇감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기 보다는 작은 양의 놀잇감으로 놀이한다거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앉아서 작은 모형을 만들어 놀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대화 또한 “우리 팽이 만들어서 대결하자 나는 00색 팽이 만들어야지” 등 확장되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메모하여 교수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교수님께서 다른 영역에 있는 소꿉놀이나 다른 놀잇감을 추가하여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럴 때 교사가 개입해서 유아들에게 놀잇감을 소개해 준다든지, “~~하면 어떨까?” 식으로 제안을 하며 놀이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고 하셔서 바로 방법을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한 유아가 블록으로 집을 만드는 상황에서 역할영역에 있는

인형과, 소꿉놀이 등을 가져와 집 안에 인형을 넣어주자 유아들이 인형에게 먹일 음식이나 밥을 짓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며 점점 확장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한번 확장하여 놀이를 하다 보니 그 후로는 교사의 도움이 없어도 인형의 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대화 내용도 “우리 OO 재웠으니까 밥 차려주게 마트가자”라고 말을 하며 놀이 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도 확실하게 확장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다 보면 놀잇감의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알게 되어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자발적으로 놀이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유아들을 관찰하고 기다려주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한다면 아이들의 놀이가 전보다 훨씬 창의적 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아의 주도성, 자율성이 활성화 될 것이고 전에 갖고 있던 구조화되고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려는 인식을 점차 바꾸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피드백으로는 쌓기놀이 영역과 역할놀이 영역을 가까이 배치하고 강화시켜 상상놀이나 구성놀이가 형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떨까? 라고 말씀하셔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영역배치를 여러 번 시도를 하여 좀 더 나은 영역별 위치를 찾아보기로 하며 다양한 방법을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놀잇감의 양 또한 중요하다고 하셔서 모든 영역에 놀잇감의 양을 체크해 보며 너무 한 가지가 많으면 한 가지에만 몰입을 할 수 있으니 고루고루 다양하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놀이 지원 방안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자료 제공하기 <input type="checkbox"/> 교사의 적절한 개입 <input type="checkbox"/> 놀이성향 파악하기
적용 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data-bbox="266 643 963 671">자유놀이 시간에 블록놀이를 주로 하였으며, 한 가지 블록으로만 놀이가 이루어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data-bbox="247 1002 981 1058">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지기 보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외골 블록으로만 놀이를 하려고 함</p>
적용 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data-bbox="247 1369 981 1449">다양한 블록으로 기차길과 기차를 구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아파트를 만들어 다양한 놀이감으로 사람을 재우기도 하고 아파트 옆에 동물원을 만들어 놀이가 진행됨</p>

구분	내용
적용 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소꿉놀이와 블록을 이용하여 케익을 만드는 놀이가 이루어짐, 작은 팽이만 만들어 놀이하다 블록으로 큰 로봇을 만드는 놀이가 이루어짐</p>

역할영역 같은 경우엔 인형놀이나 다른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의 천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였더니 유아들이 블록으로 집을 만들거나 인형의 침대를 만들어 인형을 동생이라 정하고 동생을 재울 거라며 침대에 눕힌 후 천을 이불로 사용하며 역할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형을 재우는 걸 중심으로 더욱 확장하여 인형에게 밥을 차려준다던지 인형이 누울 곳 이라며 인형의 크기에 따라 블록으로 큰 침대, 작은 침대를 만들며 생각을 확장시켜가며 역할놀이를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러한 놀이중심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확실하게 접목을 시켜 아이들의 놀이 전과 후를 관찰하여 꼭 길게는 아니더라도 그때 그때 아이들의 행동을 짧게라도 메모를 하여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어떤 놀이가 주로 이루어지는지 놀이성향을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진행하고 또 부모 상담 때에도 변화된 모습이 담긴 아이들의 활동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아이들의 주도적인 학습보다는 놀이중심 활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드리고 또 2020년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함께 생각하고 변화시켜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점점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변화된 저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놀이중심 컨설팅을 받게 되어 너무 좋았고 또 변화될 저의 모습이 기대가 되며 새로운 목표가 생겨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만들어 준 행복의 메아리

기관명 : 시립그린어린이집

교사명 : 김유진

대상 : 만3세

OO이 이리로 와요. 블록은 잠깐만 친구한테 맡겨달라고 하자. 우리 여기 에다가 색칠 해볼까? 우리 가을이니까 단풍잎 색으로 칠해 볼까? 단풍잎은 무슨 색일까? 주황색이랑 노랑색은 어때요? 아니 선 안 쪽에다가 색칠을 해야지요. 자 사진 찍어야하니까 선생님 보고. 하하하 웃어볼까?”

아이들은 익숙한 듯 내 앞에 앉아 단풍잎 도안에 색칠을 하였다. 나도 무언가에 쫓기듯이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재빨리 다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바쁘다. 그 때 한 아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나에게 보여주었다. “선생님. 내가 주운 나뭇잎인데 여기는 초록색도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많은 색깔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누군가가 정해진 도구, 정해진 정보만이 정답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현재의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3년 동안 진행되어 온 습관이란 것이 잘 고쳐질 리가 없었고 2학기 학부모 상담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부모님들께 보여드릴 자료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했다. 그렇게 나는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고 있을 때 원장님께서 “선생님. 놀이 중심 보육과정 컨설팅 받아 볼래요? 마침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년 놀이중심 누리과정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자유놀이 방식이 달라질수 있으니 선생님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내년 부터 바뀌는 놀이중심 보육과정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컨설팅’이라는 단어에서 조금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의 두려움보다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 나는 지체할 수 없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컨설팅을 신청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하세요.” 컨설팅 신청 후 집합교육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컨설팅을 위해 000컨설턴트 분께서 전화가 왔다. 나를 격려 해 주는 밝은 목소리는 두려웠던 내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게 했다. 전화를 통해 보육과 관련한 개선 하고 싶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지켰던 내 마음을 읽어주시며 컨설팅을 이어갔다. 그리고 현장방문컨설팅이 시작되었다. 첫 컨설팅 때는 늘 하던 대로 주간계획안에 맞추어서 교구와 자료를 준비하며 어떻게든 이번 주 주제에 맞는 놀이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준비한 자료보다도 친구들끼리 집에 초대하거나 집을 만드는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처음에는 내가 준비한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방문관찰이 끝난 후 아이들의 놀이에 개입이 많다는 점과 너무 계획안 대로만 놀이를 진행 하려는 점에 대해 피드백을 듣게 되었다. 사실 첫 번째 컨설팅 때 아이들이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놀이를 이끄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나는 계획된 놀이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그 후부터 나는 아이들의 관심놀이유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의 놀이 주제를 써 보고 개인마다 놀이하는 영역, 좋아하는 놀잇감, 흥미요소들을 적어보기 시작하였다. 아이들 흥미 위주의 놀이를 진행하자 그동안 내가 관찰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을 하는 시간이나 언어표현요소의 성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컨설팅 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교구



월안, 주안 계획안을 중심으로 준비된 도안, 정답이 있는 교구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놀이중심보단 아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에 바빴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틀이 정해져 있는 그림도안

1차 현장방문 컨설팅 후



버스에 대해 관찰 후 좌석도 만들어 보았어요.



2명의 친구가 진행하던 버스놀이는 교사가 제시한 실물버스 배경자료를 보고 어느새 모든 반 친구들이 참여하는 확장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컨설팅 후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관찰시간을 늘린후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가 있거나 확장놀이가 필요한 경우 관찰하고 있던 교사가 자료를 지원했습니다. 이 당시는 아이들이 버스와 달전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블록으로 버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교사가 실물버스의 사진을 배경자료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진자료를 한참 관찰한 아이들은 버스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구성을 하고 버스역할놀이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놀이중심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며 한가지 느낀점이 있었다. 아이들은 놀이에는 영역구분이 없었다는 것 이었다. '명확한 영역의 구분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놀이동선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나는 교구장을 나란히 배치하고 영역구분없이 교구를 배치하였다. 영역의 구분 없이 놀이를 진행하자 아이들의 활동 동선은 풍부해졌고 협동놀이의

빈도수가 높아졌다. 놀이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음 컨설팅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컨설팅 때도 가을이 그 주의 주제였다. 하지만 한 아이의 “선생님 달팽이는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라는 말로 아이들은 달팽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달팽이를 탐색할 시간을 주고 함께 달팽이의 이름을 지어주며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달팽이에게 빠져들면서 공병에 물을 담아 달팽이에게 줄 ‘신비의 물’을 만들기도 하고 달팽이가 집에 들어간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이전에는 바깥놀이를 나가는데 까지 30분이 걸리던 우리 아이들이었지만 “달팽이 먹이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바깥놀이 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바깥으로 나가 모래를 가지고 달팽이의 집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흙에서 미끄러지던 달팽이의 모습을 미끄럼틀을 타며 표현하는 아이들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놀이중심으로 운영하며 더 이상 계획한 놀이 진행에 급급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아이들과 함께 놀이에 푹 빠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놀이를 통한 아이들 세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풍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른도 미처 생각지 못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매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

“선생님 줄 거 있어요.”

아이들이 한글에 흥미를 보여 한글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한 다음 날, 한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가방에서 몇 번 접힌 새하얀 종이를 꺼냈다. “선생님이 지금 열어봐도 될까?”라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운지 몇 번 접힌 종이 안에는 “00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혀있었다. 삐뚤빼뚤하게 쓴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나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편지였다. 그때 문득 컨설팅을 받았을 때, 컨설턴트 분이 물었던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다.

“지금 선생님의 감정은 어때요?”

나는 컨설팅을 받으며 ‘놀이는 아이들의 언어다.’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읽어주려고도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작 나의 감정들을 읽는 시간은 조금도 없었다. 교사로서 처음

들어보는 이 질문을 듣고 내 기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의 감정도 수시로 변하듯이 나의 감정도 변화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 나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차 현장방문 컨설팅 후



달팽이 이름을
포물이로
짓는 건 어디?

새 친구 달팽이가 왔어요.



바깥놀이를 나가서도 달팽이를 찾아보고
친구와 함께 달팽이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놀이를 하여 흙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청진기로 흙의 소리가 들어보며
자연을 느껴요.

놀이중심 보육과정으로 진행한지 한달이 지나고 2차 컨설팅후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의 주제를 정하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놀이를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지원해주신 달팽이를 제공해 보았어요. 아이들은 바깥놀이시 달팽이에 관련된 질문을 지어보며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모래에 대해 관심이 생긴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견학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들 스스로가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교사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보고 충분히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현장방문 컨설팅 후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어떻게 되죠?

색깔의 혼합에 흥미가 생겼어요



물감과 스프이드를 사용하면서 색이 섞이는
과정들 관찰했어요.
그런데 휴지로 흡린 물을 닦으니까
다양한 모양이 생겨서 재미있어요.



물이 번지는 모습이 궁금해요.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물을 뿌
려 보면서 번지는 모양을
관찰하였어요.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교사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알게되었어요. 교사는 물감을 제공하였고, 아이들의 흥미에서 시작된 놀이는 호기심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직접활동방법을 만들어 보고 실천해 보는 모습입니다.

처음 놀이중심보육과정을 접했을 때 이전 보육과정과 많은 변화가 있어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컨설팅 후 놀이시간에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앞으로 성장하는 아이들과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놀이중심보육과정 컨설팅’과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생님의 생각이 달라지니~~~ 우리 유아들의 놀이 에너지 뽐뽐!!!

기관명 : 시립광교아이파크어린이집 교사명 : 조선숙 대상 : 만4·5세

지난 여름부터 ‘누리교육과정이 2020년부터 달라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놀이 중심” “유아 중심” ‘정말 유아를 위한 교육이겠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부터 해야 하지?’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놀이중심 보육과정 컨설팅’이 선정되어 너무 기뻐했다. 개정되는 “놀이중심 누리교육과정”의 강의를 듣고 원에 들어와서 강의시간에 들었던 “최고의 교육” “놀이의 힘” “놀이의 반란” 등에 대한 책을 읽고 영상을 찾아보며 하나씩 준비하였다.

그리고 1차 컨설팅 받는 날이었다. 주제가 “가을 열매”여서 가을에 관련된 열매들에 대해 알아보고 유아들과 활동했던 사전경험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구성하여 보고 수확하는 농부의 놀이로 확장하는 활동이었다. 놀이 중심이라는 생각에 “오늘은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 놀아요.” 이야기 하였더니 유아들이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 어떻게 놀아요?”하며 걱정하였다. 그래서 “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놀아요” 라며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처음엔 서성이다가 여러 영역에서 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이 계획된 놀이를 하지 않는 듯 하여 가끔은 오늘 계획된 활동을 안내하면서 놀이를 계속 진행하였다. 수업 후 컨설턴트와 면담이 이루어졌다.

유아들이 스스로 잘 놀고 상호작용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계획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안내를 하며 교사중심이었다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확장된 활동을 하기 위해 안내했던 이야기들

이 오히려 유아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니 유아들에게 미안하였다. 그리고 이름표를 사용하는 약속이 놀이를 더 제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놀이 시 이름표 사용이나 영역 제한, 계획된 활동은 유아의 놀이를 확장하기 보다는 제한하고 교사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컨설팅을 받은 후 수정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2차를 컨설팅을 준비하였다.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놀이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컨설팅을 받은 대로 교실을 넓혀 주었더니 지난번 활동보다는 유아들이 더 즐겁게 놀이 활동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즐겁게 놀이하던 중 유아들끼리 자신의 생각이 서로 달라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선생님은 친절하게 “우리가 정했던 약속 알고 있지요?”하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요?”로 유아의 생각을 들어보기 보다는 놀이의 흐름을 끊이지 않게 빠르게 조율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교구장에 있는 교구를 꺼내어 놀았는데 새로운 교구보다는 익숙한 교구에 더 놀이가 많았다. 2차 컨설팅을 받으면서 놀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유아들 스스로 중심이 되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을 해 주고 유아들이 새로운 교구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구마다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 잘 놀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며 직접적, 간접적 놀이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다. 유아들이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아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3차 컨설팅을 받는 날이었다.

주제가 “우리 생활 속의 물”이었다. 과학영역에 ‘간이 정수기’를 비치해 두었는데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였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른 놀이하다가 과학영역으로 오라고 안내를 해 주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천이 그리 쉽게 되지 않았다. 그날 놀이상황에 따라 책상이나 공간을 다르게 해 주는 것도 선생님의 놀이지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컨설팅을 받기 전 내가 알고 있는 놀이지원과 컨설팅을 받은 후 놀이 지원은 달랐다. 6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새 고정관념으로 인한 “상호작용”이 되어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유아들이 좋아할 거라는 예상했던 놀이와 다르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유아들은 놀이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다. 유아도 그대로 이고 놀잇감도 그대로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생각이 변해야 우리 유아들의 놀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다.

오늘도 “긍정 에너지가 뿜뿜!! 생겨 우리 유아들의 놀이에너지도 뿜뿜!!” 되기를 바라본다. 컨설팅을 통해서 “나는 변화되고 있고 우리 유아들은 즐거워하고 있다.”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 유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

구분	내용
놀이 지원 방안	<input type="checkbox"/> 인원수 제한 허물기 <input type="checkbox"/> 공간(영역) 제한 허물기 <input type="checkbox"/> 관찰한 후 적절한 지원하기
사례 및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교실 내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놀이가 통합되고 확장됨</p>

구분	내용
<p>사례 및 사진</p>	  <p>교사가 모든 영역마다 관찰하기보다 유아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해 주려는 모습</p>
	  <p>교실의 정해진 영역 안에서의 놀이에서 제한된 공간을 허물어 놀이 확장을 지원</p>

만남과 소통, 협의로 깊어진 보육과정의 변화

기관명 : CJ키즈빌어린이집 교사명 : 주승미 대상 : 만3세

2019년에도 나의 교사생활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만 3세 20명의 유아들과의 만남과 힘겨운 적응기간, 평가인증 후에도 지속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뜨거운 여름철의 물놀이까지... 어린이집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잠시도 쉴 수 없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한 숨 돌리는 여름휴가를 떠나 재충전을 하고,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출근하였다. 그 때 원장님께서 “선생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새롭게 개정되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한대요. 선생님 경력과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보니 적임자 같은데... 우리 함께 도전해볼까요?”라고 제안하셨다.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으나 원장님의 함께 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 컨설팅에 지원하게 되었다.

2020년부터 변화되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기대와 두려운 마음을 안고 드디어 집합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중 나의 머릿속에는 지난 6년간의 교사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갔고, 교육이 끝나자 마음이 초임교사 때처럼 막연하고 멍멍해졌다. ‘어떻게 내가 놀이 중심 교육으로 살아가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원장님의 믿음과 격려에 힘입어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세 번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의 변화, 보육과정 운영의 변화, 어린이집에서의 협의, 자기반성적 사고와 진정한 놀이중심에 대한 시각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나 수기에는 지면상의 이유로 다 기록하지 못하고 몇 가지 중점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변화는 교실 내 구조적인 변화 즉 환경의 변화이다.

00반 유아들이 올 해 가장 흥미를 보이고, 즐겁게 참여한 영역은 쌓기영역과 역할영역, 그리고 미술영역이었다. 쌓기영역과 역할영역에서 놀잇감 넘나들기는 이루어졌으나 연합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던 중,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쌓기영역과 역할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해보자는 피드백을 반영해 이를 실행해보았다. 교실 공간 바꾸기에 대해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가 이루어졌고,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교구장을 옮기며 유아들이 주도하는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갔다.

또한 미술영역에서는 물감놀이에 흥미를 보이는 유아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활동공간과 매체가 부족해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앞선 컨설팅의 경험을 반영하여 미술영역도 조금 더 넓게 구성해 보았다. 또한 물감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벽면에 가시적으로 작품을 되돌려주자 유아들은 물감놀이를 더 즐거워하며 몰입하였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물감놀이 속 함께 놀이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교사로서 유아 중심적 놀이와 놀이 중심적 보육으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유아들을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과 보육과정의 변화이다.

2차 컨설팅을 통해 유아의 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기다림이 필요하며, 유아의 놀이가 확장되고 몰입이 일어나도록 돕는 교사의 책략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아동 중심, 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던 중, 매일 쓰는 일일보육계획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이 일지가 우리가 매일 매일을 교사 주도적인 계획과 활동, 아이들에 대한 평가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장님과의 협의 후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계획안을 작성하고 기록하기 위해, 교사의 계획과 유아의 놀이가 명확한 선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기술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며 보육일지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나와 학급의 동료교사에게 유아들의 놀이와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과정에

서 ‘조용한 유아는 왜 관찰 빈도수가 적을까?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교사는 얼마나 기다려주어야 하는가? 유아들의 기질과 발달에 따른 개인차는 어떠한가?’ 등 평소에는 깊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반성적인 사고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협의문화 구축이다.

평소 교사들은 일상적인 대화로 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유아의 놀이와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별도의 협의시간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적인 연구모임과 협의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교사들이 「발현적 교육과정」과 「표상활동」에 대해 자체 세미나를 실행하고 유아에게 진정한 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또 유아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놀이주제와 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지원과 책략에 대해 연구하고 심도 깊은 협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준비된 교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놀이중심 보육과정 컨설팅과 피드백을 3회 진행하면서 교사와 어린이집은 반성적 사고를 통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놀이하다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좌절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며 유아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도움을 주려했던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최소한의 개입과 기다림을 통해 유아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일과 중 유아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제공하기, 유아가 스스로 놀잇감과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 참여하기,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나가며 즐거기가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교사로 오늘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유아들은 스스로 놀이의 주체자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유능감을 발현하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 즉 집단지성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본 컨설팅을 통해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환경구성과 적절한 매체제공, 유아 중심의 보육과정 구성, 그리고 어린이집과 교사 간의 협의문화 구축이 필요함을 체감하게 된다. 앞으로도 본 컨설팅을 지속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많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어린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교육은 교사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 모든 교직원들이 철학을 공유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부모가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유아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유아에게 보다 긍정적인 보육과정이 되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마련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해주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세 번의 컨설팅에 언제나 긍정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 그리고 언제나 믿어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원해주시는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실 내 구조적인 변화 즉 환경의 변화



컨설팅 전의 쌓기영역과 역할영역

직접 영역 바꾸기에 참여하는 유아들

컨설팅 후 쌓기영역과 역할영역



단순히 끼적이는 수준의 물감놀이에서 색채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색 놀이로 놀이의 확장과 물입이 이루어짐

행복한 교실 놀이터를 꿈꾸며

기관명 : 엘시드어린이집

교사명 : 박수진

대상 : 만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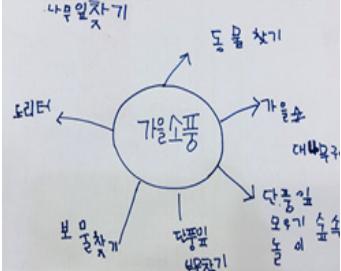
놀이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첫걸음을 뗀 그 시절은 유아들과 다양한 퍼포먼스 놀이와 오감 수업을 통해 놀이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교수 자료를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시도해보며 유아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알게 된 초석과도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지금의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된 어려움은 틀에 박힌 시간표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루일과를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한 주위의 교사들이 시계추처럼 하루일과에 쫓기며 매일을 반복하는 일상이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이 비슷한 환경에 익숙한 놀이감뿐이고 거기에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게 되니 아이들은 무기력해지기 쉬웠고 짧은 시간조차 집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먼저 보이는 부분부터 영역을 조금씩 바꾸어 보았습니다. 처음 맡은 반은 만2세반이었는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영역은 색칠공부와 블록놀이뿐 나머지 시간은 교구장에 올라간단던지 교실에서 뛰거나 서성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외면하는 역할영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다른 것은 다 평범했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는 주방 놀이기구가 한꺼번에 바구니 속에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걱과 국자 등을 걸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 아이들의 손에 닿을 수 있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외면해왔던 역할영역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싱크대 앞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반응에 마음이 뿌듯해 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마كن을 사용해 빨랫줄을 걸어 빨래도 널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빨래감과 집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날부터 역할영역은 아이들을 스스로 움직이고 놀이하게 만드는 즐거운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사의 놀이지원이 아이들의 놀이 자발성을 자극하는데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들의 놀이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 수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실이 아이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놀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 매일, 매순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를 만나러 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원장님이 컨설팅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일과가 아닌 또한 평가인증이라는 제도의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한 교실이 아닌 교실이 살아 숨쉬는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발적 놀이공간으로 창조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놀이중심”이란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는데 놀이중심 시범사업 컨설팅이 혹시 저와 저희 어린이집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면 지금 저희의 교실을 전문적인 분들에게 검증받고 오류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스스로 놀기 시작한 교실은 특별한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규칙을 인정하고 서로 협동할 줄 알며 즐거움을 주는 놀이공간을 아이들이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는 기본이고 교실전체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절제되고 안정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무기력하지 않고 능동적인 자발성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에서 교수님과의 면담 후 저에게 주어진 솔루션은 굳어진 의식을 허물고 평가인증 중심의 구조화된 강박에 사로잡힌 공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융통성없이 타이트하게 진행되었던 계획, 실행 중심의 일과 속에서 유아들의 자발적 놀이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놀이의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놀이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하고 반영하기 □ 놀이 시간 확장하기 □ 가정 연계활동 진행 □ 능동적으로 영역 확장·축소하기
사례 및 사진	<p>첫 번째로 제가 한 일은 다음 달의 교육 주제와 목표를 설정할 때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을”을 주제로 유아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아이들이 직접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월간계획안을 만들 때 일주간의 세분화 되었던 주간 계획을 2주씩 놀이 시간을 확장하여 1,2주 의 교육 목표, 3,4주 그리고 5주의 교육 목표와 맞닿아 연계성 있도록 놀이를 시도해 보았습니다.</p> <p>1,2주 “가을 날씨와 풍경”을 주제로 가을에 대해 놀이를 해보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숲에 나가서 자연을 느끼고 숲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가을 자연물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수집한 자연물은 역할영역과 쌀기 영역에서 숲을 만들어 주었으며 놀이 확장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사례 및 사진	<p>3,4주부터 본격적으로 “가을 소풍을 떠나요”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캠핑장 구성과 캠핑장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현재 놀이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연계 활동으로 유아들이 가을 산책을 하며 수집해온 나뭇가지, 솔방울, 나뭇잎으로 “tv 프로그램 : 정글에 법칙”의 모닥불을 직접 구성해보기도 했습니다. 모닥불 하나로 유아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그리고 확장의 연속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술영역에서 아이들 스스로 재료를 찾아 지점토로 마시멜로와 꼬치구이를 만들어 모닥불에 구워 먹는 놀이도 해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를 교사가 지원 하였을 때 유아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발성을 가진 놀이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놀이를 지원하면서 유아들의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컨설팅을 받으며 저어겐 힘이 들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설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역에 무엇을 줄여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유아들의 손길이 닿지 않고 방치되다 시피 하는 영역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보며 컨설팅 때 지도받은 내용을 상기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유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었던 과학 영역과 수, 조작 영역의 영역 장을 하나의 영역으로 축소하여 유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영역구성을 점차 진행해 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례
및
사진





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위축감은 자신감으로 영역에 대한 강박은 자유로움으로 무엇보다도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확장해나가는 방법을 알고 다양한 시도와 방법으로 놀이를 지원하였을 때 아이들 스스로 유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실의 목표는 그 달의 교육주제를 찾아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겁게 놀이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발성과 유능함을 발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 유아들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과에 맞추어 끌려가는 아이들은 뛰어난 능력을 발현하지 못하지만 교사가 지원한 교실 놀이터에서 끊임없이 창의적인 자극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교사의 기대치와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집중력과 함께 눈부신 확장활동이 가능케 하는 상상력과 유능함이 돋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저로서는

이런 아이들의 유능함이 때론 두렵기 까지 합니다. 신기한 아이들의 능력입니다.

제가 1인칭의 시점으로 글을 풀어 나가지만 놀이 중심 시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받기까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교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늘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원장님께 제일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놀이 중심에 대해 교육적으로 공감대가 같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 뿐 아니라 이미 다른 반 교사들도 연령의 특성에 맞춰 아이들의 목소리와 반응을 인정해주며 놀이중심 교육 방향으로 교실을 운영해 나가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교사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배움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성장하는 어린이집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놀이활동 지원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관명 : 수원시청어린이집

교사명 : 김현주 대상 : 만5세

유아들에게 있어 놀이가 가장 중요한 발달의 요소임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이가 무엇인지... 교사로서 진정한 놀이를 통한 발달을 어떻게 도모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정누리과정이나 온다고 하였을 때부터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원장님과 함께 의논하여 보기도 하고 참고 서적을 통하여 미리 알고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진정한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음' 이었습니다. 이론으로 찾아보고 학습할 수 있었으나 막연하게 느껴졌고 교수·학습의 지원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가장 고민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에서는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예전에는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유아들에게 안내하고 함께 활동을 즐기는 것이 참된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 느낀 것은 수업이란, 주제에 맞춰 미리 준비 된 환경에서 유아들이 어떠한 관심을 보이는지 기다리고 유아들이 관심을 보일 때 유아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확장된 활동을 나타내 보이기도 할 때에는 신이 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는 전체활동 시간에 모두 모

여 설명하여 유아들에게 흥미도를 높였었는데, 지금은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했습니다. 느낀 것은 버려지는 활동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 후 다른 활동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더니 놀이를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유아가 생각하는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유아들에게 자유놀이시간은 발달에 있어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미리 준비해주고 제시해주어 유아들의 자유놀이시간에 모두 들어가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자유놀이였는데 제가 준비한 활동을 유아와 함께 했습니다. 유아와 함께 환경퍼즐을 맞추기 하며 놀이했다고 생각했는데 퍼즐을 다 맞추자 유아가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 나 이제 다 했으니깐 놀아도 되요?”라고 물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생각한 놀이가 유아에게는 놀이가 되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느낀 놀이는 유아가 생각하는 기준의 놀이가 진행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교사가 관찰하며 유아들이 이루고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거나 지식이 많은 유아가 앞서서 그러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교사는 모르는 것이나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놀이수업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연구하는 수업입니다. 유아들에게만 자유를 보장한 활동의 수업이 아닌 교사에게도 자율성을 보장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님이 처

음 오신 날 실수할까봐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 전에 교사로서의 모습이 나올까 더더욱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놀이를 진행하는 중 유아들이 자신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전이라면 다툼이 있었던 유아들을 불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기다렸습니다. 유아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이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조금 덧붙여 주세요.) 서로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던 유아들이 자신들도 지치는지 서로 간격을 두고 췌려보기를 하다 각자 놀이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속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명이 놀이에 양보를 하며 갑자기 극적 화해가 이루어지더니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시 놀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00반 친구들이 인원은 적지만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컨설팅트님께서 해주신 조언과 원장님의 지지를 받아 저 또한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배움이 있는 놀이를 주제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에 초점을 두어 다양하게 활동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인성에 관련된 그림책을 교실에 언어영역에 자연스럽게 비치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글로 쓰고 교실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붙여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놀이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우리가 쓴 거 있잖아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야기하면서 점점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다툼이 보일 때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 스스로 분위기 전환을 하는 친구도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 하였고, 예전 같으면 놀이시 우리 규칙 정할까 실외 활동 시 유의 사항을 교사 주도로 이야기하고 나갔을 텐데 스스로 손을 잡고 마주보며 규칙을 정하고 이야기 하면서 놀이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형극 놀이를 할 때에도 인원이 적어 배우와 관객을 할 때 어려움을 보였으나, 교사의 한마디에 “동생 반들도 오라고 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역할을 정하고 스스로 미술영역에 가서 인형을 그리고 만들어 놀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무한한 지혜반 친구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부정적으로 느끼는 교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익숙한 것을...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교육과정을 왜 수정해서 이러한 혼란을 주는지에 답답함을 갖은 교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 조금만 시선을 바꾼다면, 아이들과 저에게 조금의 시간과 여유를 허락해준다면 놀이중심 보육과정이 더 나은 활동이 될 것임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에게 이렇게 되문습니다.

“한 가지 길만이 갈 수 있는 길일까? 돌아가는 길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유아들과의 놀이중심보육과정이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놀이 가운데... 활동 가운데... 제가 생각 못했던 다른 답들이 나오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00반 아이들은 더 즐겁습니다. 저도 00반으로써 지름길을 돌아가는 길을 배우며 놀이하며... 생각을 나누며 더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내용	
놀이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흥미와 놀이에 관심가지기 □ 기다려주기, 자율성 격려하기 □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 제공하기 □ 유아의 주도적 활동 지원하기(유아들 간 놀이 계획 정하기) 	
사례 및 사진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기	적절한 개입으로 놀이 확장 극대화 지원하기
		
	놀이를 관찰하고 확장 지원하자 매일 지속·확장되는 연극 놀이가 진행됨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해 인성 관련 자료 제공하자 변화모습이 관찰됨. 서로 이야기 나누며 글을 쓰는	자료 제공하자 변화모습이 관찰됨. 그림, 칠판에 붙여서 읽는 모습	

사례
및
사진



놀이 시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모습, 오늘 할 놀이를 정해보기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컨설팅을 마치고

기관명 : 한국어린이집

교사명 : 김진화

대상 : 만4세

2020년 3월부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개편이 된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내년부터 바뀌는 교육 과정 개편으로 인해 미리 교육을 받아보자고 하시는 원장님의 권유로 8월 23일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 컨설팅 집합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현재의 어린이집의 놀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마주하고 깨닫게 되었으며 유아, 놀이 중심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범 어린이집으로서 현장 방문 컨설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였던 교육이 끝이 나고 돌아오는 내내 막중한 부담감이 느껴졌다. 9월 8일 담당 컨설턴트이신 000 교수님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컨설팅이 시작되었다. 9월 19일 1차 방문을 약속하고 난 후 사전 체크리스트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지금 와서 돌아켜보면 내가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내 자신에 대해 직시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교수님의 1차 놀이 지원 관찰을 마치고 피드백을 듣는 과정에서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내가 깰 틀이 참 많구나’라는 것이었다. 규칙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는 그 규칙과 약속들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차 컨설팅이 끝나고 내가 먼저 행한 일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변화를 준 일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원 생활의 패턴이 진행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영역의 공간들이 유아들의 놀이에 맞춰 확장되거나 축소되었다. 또한, 놀이의 방해

요소의 해결방법으로는 각 영역의 교구장들과 책상의 위치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는 점이다. 공간이 넓어지자 유아들의 놀이에도 더 큰 확장이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변화하려 생각하고 노력하였지만 그래도 내가 정한 약속들을 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 정해진 규칙에 유아들을 맞추려하는 행동들은 아직도 고민하고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짐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유아에게 선택권과 결정권을 돌려주라는 이야기가 2차 컨설팅에선 가장 크게 와닿았는데 교사가 제시하고 교사가 결정하려는 오랜 습관 같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유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유아들만의 약속을 정해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려 노력하나 이 또한 아직은 어렵다.

3차 컨설팅을 통하여서는 ‘내가 참 많이 유아들의 놀이에 개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이였다. 생각해보니 모든 놀이과정에서 유아들이 의견을 나누거나 분쟁을 해결할 때에도 항상 교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행복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만 제공하고 뒤로 물러나 유아들이 즐거움으로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을 깨달았다.

컨설팅이 시작되었을 때는 나 자신을 오픈해야 함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3차에 걸친 교수님의 컨설팅을 통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직시할 수 있었으며 또한 ‘유아들이 행복한 교실’로 변화하려는 노력과 도전이 있었음에 감사한다. 아직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위해 내가 내려놓고 세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마다 생각의 변화로 아이들의 주도적인 놀이를 통해 재미와 도전 그리고 상상의 반복으로 놀이를 통해 큰 힘을 얻어 날마다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본다.

컨설턴트 방소영

새로움에는 항상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분야에서도 놀이중심 누리교육과정의 개정은 어린이집의 보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가장 손꼽힐 만한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에서는 개정누리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의견을 토로한 한 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 빠르게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컨설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고, 현장의 두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됩니다. 저는 교사수업 컨설팅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기에 본 시범사업에 많은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중심 보육과정 컨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사와의 상담이 우선 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연령 뿐만 아니라 학급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사가 관찰하고 느끼고 있는 유아들의 놀이 특성과 성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사전 정보를 수합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교사에게 유아들의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물었는데, 교사는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제가 개입을 하면 놀이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30여 분간 이루어진 전화 상담을 통해 있는 해당 반의 놀이 특성과 교사의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정해진 날짜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문 당일 제가 느낀 교사에 대한 인상은 “너무 착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요구에 다 반응해주고,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은 손수 제공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바닥에 교사가 앉기라고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교사의 어깨에 매달리고, 무릎 위에 눕는 등의 행동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참 편한 교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쉬운 부분은 환경 구성과 상호

작용의 질적 결함이었습니다. 영유아들의 활동에 대한 표면적 행동 읽어주기, 사진촬영을 위한 일률적 놀이개입은 영유아들의 놀이를 단절시켰고, 부적절한 환경구성은 놀이 환경에 안정감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와 교사는 아이들의 힘과 교사의 선함과 열정에 의지하고 변화하기로 다짐을 하고, 제가 생각한 것과 관찰한 내용을 조금은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일에는 교사가 영유아들의 놀이 집중을 위해 환경을 조금씩 수정하고 영유아들의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방안대로 영역을 변화시킴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의 놀이는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았으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놀이제공자, 놀이안내자, 놀이관찰자, 놀이촉진자임을 고려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은 교사의 사진 촬영 빈도를 줄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관찰 및 상호작용을 실시하는 것임을 안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컨설팅에서는 저와 논의를 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고,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들 역시 스스로의 놀이에 집중하고, 상호보완적인 놀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이 가시적으로 관찰 가능했습니다.

한 번의 전화 상담과 세 번의 관찰은 변화를 촉구하기에 절대적으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유아들과 긍정적인 관계가 맺어있고, 영유아들의 힘을 믿는 교사, 그리고 더 좋은 놀이 환경을 위해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라면, 놀이중심 보육과정 컨설팅으로 훨씬 더 성장 할 수 있고, 나아가 보육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이미나

유아교육에서 놀이는 가장 이상적인 교수, 학습 방법으로 여겨진다. 유아에게 놀이는 삶이자 본능이며, 가장 큰 관심사이며, 권리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유아에게 놀이의 자유,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각 되면서 교육에서 놀이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 놀이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현장의 교사는 놀이를 지도하면서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유아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유아 스스로 놀이를 심화 확장하도록 할지, 유아들이 놀이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개정 누리과정 시행에 앞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컨설턴트로 참여하게 된 나는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여 유아들의 놀이 활동 및 놀이 지원을 관찰하고 교사와 동반자가 되어 문제해결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의 놀이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교사는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된다. 교사의 적합한 중재는 유아 놀이를 더욱 더 풍부하게 확장 시키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교사중심의 관점에서 놀이 계획부터 평가의 과정을 다루는 것에 익숙해진터라 놀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유아중심에서 놀이 시간을 교육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에 막막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며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안전하게 놀이 환경만 제공하는 관찰자여야 하는지, 교사가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지, 유아의 전인 발달을 위

해 놀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개입자가 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지속 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유아의 흥미를 바탕으로 한 유아 주도의 자발적인 놀이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놀이 중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아 간 진정성 있는 교감을 바탕으로 한 교사의 민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적인 개입은 유아의 놀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적극적인 놀이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적인 놀이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유아는 최적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교사 또한 유아와 함께 하는 놀이하는 그 순간이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회차를 거듭해갈수록 교사의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놀이에서 유아의 자발성이 주가 되며 놀이에 몰입하여 즐거움이 묻어나는 놀이로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교사의 값진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교육현장에서 놀이를 지도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까이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조성 등이 더불어 이루어진다면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 현상이 더욱 빨리 안착 될 수 있을 것이다.

컨설턴트 이미선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컨설팅’을 마치며……

“선생님 더 놀면 안돼요? 더 놀고 싶어요!!” 라는 아이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가에 남아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 교사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교사는 하루일과 매순간순간 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늘 생각을 한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사상은 지적이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 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한다. 이에 개정 ‘놀이중심 누리과정’도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19년 8월 놀이집합교육을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컨설팅’은 기존 현장에서 놀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고착화되고 구조화되었던 수업방식과 놀이 신념에서의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 일이다. 즉, 놀이 시 교사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 새로운 시도의 실천으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마음의 틀 깨기’를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 및 놀이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유아들은 교사의 말 한마디,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에 교사가 수업에 있어 얼마나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로 유아와 만나느냐에 따라 그 반의 놀이 분위기는 매우 달라진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놀이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적용은 잘 계획된 일과와 놀이에 “유아가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아 스스로의 경험이 자유로운 놀이”로 즐겁게 놀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20년 개정 ‘놀이중심 누리과정’도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

는 ‘유아중심 &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놀이 활성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보육현장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며, 지금과는 다른 측면에서 놀이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놀이는 유아가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존중받음을 느끼고, 놀면서 규칙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에 기관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루일과 중 영유아의 놀이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유놀이 시간! 아이들의 눈에 교사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매일 수첩정리를 하고, 가정통신문 나눠주고, 교사실에서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 선생님, 우리와 바빠서 놀아주지 않는 선생님이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놀이시간 교사는 항상 아이 옆 놀이 곁에는 있으나 선생님은 유아의 놀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한 번의 눈 맞춤과 나와 놀아주고 내 놀이에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교사라고 한다.

반면 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 보육현장은 놀이중심 활동에 대해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연 가능할까요?”, “놀이의 첫 발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까요?” “놀이를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유아의 진정한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곳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물음에 컨설턴트로서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며 내가 한 대답은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처럼만 아이들과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놀이의 신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놀이공간과 시간 등에 대한 틀을 한 번 깨 보세요. 클레이처럼 말랑말랑하게 말이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은 혁명이 아니기에 지금처럼 운영을 하되 선생님들의 양 어깨에 올려놓았던 교사의 권력을 아이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이다.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걱정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놀이를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우선 현장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놀이 컨설팅 과정은 온라인 컨설팅과 현장방문 1차, 2차, 3차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컨설팅 전과 후의 교사-유아-교실의 환경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컨설팅을 통한 교사 측면에서는 놀이신념의 변화 구조화된 영역 틀 깨기와 교사로서 그동안 가졌던 수업방식 및 철학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제가 이렇게 규제가 많고 교사주도의 모습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매일의 반복되는 일과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던 같아요.” 하며 이제는 유연한 사고의 틀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유아의 측면에서의 변화는 교사의 분위기를 많이 살피던 아이들도 자신들의 놀이에 몰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싶은 놀이를 해도 된다는 교사의 무언의 허락들이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으로 표출되었다. 선생님 “진짜 재미있어요?. 우리 또 놀아요” 땀을 뻘뻘 흘리며 삼삼오오 교실을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다. 또한 놀이의 구성물들도 커지고 순수놀이공간을 마련해 주니 다른 영역과의 연계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밖에서 보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느라 교실의 분위기는 더 소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공간에 존재하는 아이들은 행복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세 번째, 교실의 환경측면에서의 변화는 단편적으로 영역운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흥미영역은 고정화가 아니라 언제나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통폐합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교실의 놀이 공간에 변화가 일어났다. 더 나아가 놀이는 교실 밖을 나가 복도, 옆반, 동생반도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물론 안전의 문제가 있겠지만 사전 충분한 토의와 이야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교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니 더불어 유아들의 놀이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놀이도 놀아본 자만이 즐길 수 있듯 교사가 놀이 속에 들어와 아이들과

신나게 노니 유아들의 놀이세계를 이해하고 놀이의 표면적인 모습과 더불어 내면의 놀이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지만 놀이 속에서는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놀이친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컨설팅’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아에게 좋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일과 놀이를 치밀하게 계획하여 유아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자칫 교사의 의도가 너무 앞서 유아의 흥미나 관심보다 먼저 앞서나가는 것은 자칫 교사주도의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교사는 ‘기다림’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무게감부터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놀이가 보일 것이다. 즉,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놀이에 관심을 갖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길 바란다.

나에게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는 일은 매우 설레고 기쁜 일이었다. 특히 이번 놀이컨설팅을 통해 만난 선생님들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열정과 관심, 개정되는 누리과정과 놀이에 대해 배우려는 의지가 높았으며,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걱정보다는 믿음이 더 든다. 개정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실천은 먼저 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구조화된 놀이 공간의 변화, 시간, 규칙의 틀 깨기, 유아에게 놀이 주도성 넘기기 등의 시도 중 한 가지만이라고 먼저 실천해 보길 바란다. 놀이컨설팅 관련 경험은 교사의 고착화된 놀이 신념에 영향을 미쳐 보육교사로서 놀이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어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1:1 교사 수업컨설팅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 (대상) 경기도 관내 어린이집 교사
- (기간) 2019년 3월 ~ 12월
- (추진체계)



3. 컨설팅 진행과정 및 내용

컨설팅 진행 과정		주요 내용
1 단계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교사 수업컨설팅 사업 안내 ○ 1:1 교사 수업컨설팅 기본 이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역량 및 자세 - 보육과정 운영, 상호작용 등
↓		
2 단계	1차 현장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일정 협의 ○ 컨설팅 1차 현장 지원(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1차 수업 관찰 및 피드백)
↓		
3 단계	소그룹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계획안 및 활동내용 분석 ○ 바람직한 수업 및 상호작용 사례 공유 및 대안 모색
↓		
4 단계	2차 현장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일정 협의 ○ 컨설팅 2차 현장 지원(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2차 수업 관찰 및 피드백)

☞ 총 운영 기간은 2~3개월이며, 단계별 2주 간격으로 운영

고강1동어린이집

보육교사 권은혜

저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보육과정, 영유아발달,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교사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얻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보육과정 운영하고자 「1:1 교사 수업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차 컨설팅은 10:00~12:00 동안 진행되었으며 코알라반 일과에 따라, 오전간식 - 대소집단활동 등이 진행되었고, 대소집단활동의 경우 하브루타 동화 '나무랑 사람이랑'을 들은 후, 동화 내용과 관련하여 나무와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피드백 시간에는 독서활동에 있어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자리 재배치하기, 미술영역 교구 중 가위, 풀의 경우 반 인원에게 맞춰 20개 제공되기보다는 아이들이 놀이에 편히 집중할 수 있도록 수량을 줄여서 제공해주기, 아이들 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는 아이들 간의 이야기 나누기를 격려해주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줄이기, 아이들의 물음/생각에 답할 때, 대명사 사용은 자제하고, 물건의 경우 물건의 정확한 명칭을 들려주며 이야기하기, 만4세의 기본생활습관 내용에 따라 등원한 아이들의 가방 및 물건 정리를 지나치게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 스스로 경험해가며 자기주도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등의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컨설팅은 당일 10:00~12:00 동안 진행되었으며 코알라반 일과에 따라 오전간식, 대소집단활동 등이 진행되었고 대소집단활동의 경우 교구(세

계 속의 우리나라 퍼즐)를 탐색하고, 우리나라 지도 퍼즐을 맞춰보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팅 후 피드백 시간에는 자유선택활동 가운데 유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해서 유아들의 수준에 맞춰 적절히 지도하기, 퍼즐 등 교구를 이용한 활동을 진행할 경우, 교구 준비 및 유아들의 교구 탐색 과정을 격려 및 안내하기 위해 철저히 사전 준비 하기, 만4세 시기의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라 좀 더 세심히 상호작용과 보살피기, 아이들의 언어 표현 및 욕구에 대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 및 지도하기, 대·소집단 활동 진행 중 이야기 나누기 과정에서 유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 또는 어떤 설명을 해줄 것인지 명확히 방향을 잡은 후 간략히 진행하기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고강1동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미라

만1세 영아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이다. 이번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도움을 받고자함이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 영아와의 상호작용 교수법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지원하게 되었다.

집합 교육을 통해 교사의 역할이 놀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인상적 이었다. 놀이란 무엇일까? 놀이는 음식이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먹는 것처럼 같은 놀잇감으로 교사가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영아의 흥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놀이는 영유아의 놀이 선택과 지속적의 자발성, 놀이 과정에서의 주도성, 그리고 이로 인한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영아가 자발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1차 컨설팅 시 컨설턴트는 계획한 놀이 활동과 놀이 시 교사가 하는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관찰 이후 이후 피드백 시간이 이어졌다. 영아들과 대근육 활동에 대해 상호작용 후 흥미를 느낀 영아와 함께 교사가 개별 영아의 이름을 불러 영아가 나와서 까치발을 하고 두 손을 사용해 양파링 과자를 따먹으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놀이를 하였다. 또한 영아들에게 바구니에 들어있는 모형 과일 이름을 들려주며 상호작용해주었다. 영아들에게 모형 과일을 들고 이름을 물어보니 영아들이 이름을 말한다. 영아에게 과일 인쇄물을 나누어주고 “OO아 이 과일은 무엇이에요 하고 물어보니 인쇄물의 과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영아가 좋아하는 크레용

으로 끼적이지도록 상호작용하였다.” 영아들에게 바나나 주스 만드는 방법을 상호작용해주었다. 흥미와 호기심을 보인 개별 영아가 소근육을 사용해 바나나 껍질을 벗겨 절구통에 넣은 후 교사를 모방하여 나무절구로 바나나를 으갠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숟가락을 사용해 개별 컵에 담는다. 교사가 따라준 우유를 바나나와 함께 섞은 후 자신이 만든 바나나 우유를 숟가락으로 먹다 옷에 쏟아 버린다. 교사가 영아를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영아들의 숟가락을 회수하고 두 손을 사용해 컵을 들고 마실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다. 영아 중 한 명이 자신은 숟가락으로 먹겠다고 떼를 써서 영아에게 허락하니 다른 영아도 숟가락으로 먹고 싶어한다. 숟가락을 달라고 해서 주니 자신이 만든 바나나 주스를 먹으며 만족해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고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다음 활동은 코시코스우편마차를 음악을 틀어준 뒤 영아들이 자유롭게 과일 풍선을 치며 놀이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다. 신이 난 영아들은 서로 풍선을 치겠다고 한곳에 몰려 영아들의 안전을 생각해 개별 영아가 자신의 구역에서 자신의 풍선을 치고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피드백 시간이 이어졌다. 피드백 시간에는 보육과정 운영의 개선점과 상호작용 관찰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다. 놀이 수업준비는 잘했으며 놀이 활동을 하는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 놀이 활동이 영아중심이어야 하는데 교사중심의 수업이 되었다. 영아와 놀이 시 대그룹 활동보단 소그룹 활동으로 하여야 한다. 영아와 대근육 활동에서 과자가 바닥에 떨어지자 영아가 휴지통에 버리러 가자 기다리는 영아들을 보았다. 소근육 활동에서는 절구보단 지퍼 팩을 사용해 영아가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소그룹 컨설팅도 이루어져 다양한 사례를 듣고 영아와 활동 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대니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지현

1:1 교사 수업컨설팅은 원장님의 권유로 컨설팅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부분이 많으니 컨설팅을 받으며 개선할 점이 있는 지 체크하고 싶었습니다.

컨설팅 집합교육을 받고, 방문컨설팅을 두 번 걸쳐 받으며,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보시기도 하고 환경 준비 사항도 꼼꼼히 체크 하시며 지도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상호작용 할 때에 조금 더 노력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려웠던 부분도 많이 질문하고, 성의껏 대답해주시는 교수님말씀을 듣고 개선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었고, 교실 안에서 음악이 많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음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준비를 할 때에도 조금 더 실물 위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실로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보인다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컸지만 컨설팅을 받고 나니 이러한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마음도 들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많은 교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더 노력 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립고색누리터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라영

올바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영유아를 위한 교수법 및 상호작용에 대한 점검을 위해 원장님의 권유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평가인증을 마쳤지만 다시 한 번 나의 일과 운영과 교수법, 그리고 영유아를 바르게 지도하고 안내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하며 개선할 부분은 바르게 고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1 교사 수업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1:1 교사 수업 컨설팅 집합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육과정 운영과 상호작용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운영방법을 교육받음으로서 영유아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바른 보육과정을 운영을 위한 적절한 교수방법과 실행능력, 그리고 반성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고,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며 놀이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느끼며 나의 교수방법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공부하고, 영유아에게 민감하고 따뜻한 교사로서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놀이나 사회적 기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늘 영유아들을 존중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일과 중 수업 진행과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놀이 활동을 위해 교실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고, 개별 영유아의 특성을 잘 파악해 영유아에게 적합한 개별적인 상호작용법과 신체리듬 조절을 도와주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연령의 교사 분들과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며 함께 영유아나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힐링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립고색뉴지엄어린이집

보육교사 남미연

1:1 교사 수업컨설팅을 받으며...

저는 시립고색뉴지엄 어린이집에서 현재 만 1세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 2년차의 보육교사 남미연입니다. 원장님께서 올해 초쯤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1 교사 수업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년차가 되었으니 보육교사의 역량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 동료교사 한 분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1:1 교사 수업컨설팅 집합교육을 받으러 수원여자 대학교로 갔습니다. 저희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본 이론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의 교수님께서서는 표준 보육과정을 기반으로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주셔서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컨설팅 담당 교수님의 소개도 있었고 1,2차에 걸쳐서 현장 방문이 있고 소모임도 중간에 진행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듣고 조금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1차 컨설팅은 6월 21일 금요일에 오전 10시~11시에 진행되었고 오전 자유놀이시간에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을 컨설팅 교수님께서 교실 내에서 계시며 관찰하셨고 관찰내용에 대한 보완되어야 할 점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피드백 받았던 내용은 언어영역에 쓰기재료(크레파스)가 영아 수준에 맞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영아들이 쌓기 영역에서 놀이 할 때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사가 영아의 개별 놀이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피드백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점을 보완하여 언어영역에 비치해 두는 쓰기재료를 영아 수준의 파스넷, 색연필로 달리 제공하였고 개별 놀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면서 갈등 상황이 전보다 줄게 되었고 교실 내 분위기가 확연히 좋아지게 되어서 교사인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모임은 7월 4일 목요일에 진행되었고 교수님과 교사들 간의 보육과정에 대한 논의도 하고 상황별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과 교수법을 연구하면서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교수님이 소모임때 유인물 자료로 나누어주셨던 영아 사회정서발달의 내용도 발달 시기마다 영아들의 사회정서 발달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관찰일지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사들이 교육기관에서 쓰는 자신만의 노하우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주셨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 방향과 영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1차 컨설팅 당시에 피드백 주셨던 점을 교사들 마다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해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시간을 가져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차 컨설팅은 8월 20일 화요일 10시~ 11시 사이에 진행되었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오전 놀이시간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때 교수님께 받았던 피드백은 동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을 나누고 같은 반 교사끼리(2담임) 서로 의논을 해서 구역을 담당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영아들을 케어하면서 놀이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여 같은 반 교사와 함께 의사소통하였고 교실 내 놀이영역 구성과 교구장을 다시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그전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뛰면서 교실 내의 분위기가 들떠있거나 항상 밀치는 거친 신체놀이를 하는

영아들이 많았는데 매트 위에 앉아서 쌓기를 구성하거나 교사와 함께 상호 작용 나누며 놀이를 하는 영아들이 많이 생겼고 교실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차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1:1 교사 컨설팅을 통해서 나 자신의 교수법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반에 있는 환경을 개선해보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의 추천으로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지만 2년차 교사인 저에게는 많은 도움과 큰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립그린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세린

컨설팅 신청 의뢰를 한 이유는 주변 동료 교사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임인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이라는 조언들을 해주셔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컨설팅을 처음 1차로 받았을 때 큰 떨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영아들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컨설턴트 교수님께서 관찰 후 피드백을 받았을 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아들에게 ‘개방적 질문’을 해주어라. 그동안 영아들에게 상호작용을 해왔을 때 “여기 누구랑 갔어요?”, “가서 뭐했어요?” 와 같은 형식적인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방적 질문이란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책을 살피고 공부하여 개방적 질문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1차 때 컨설턴트 교수님께서 영역별로 놀잇감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후 영역별로 다양한 놀잇감을 추가로 영아에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영아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놀이기 보다 영역별로 소그룹을 이루어 놀이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초임이기에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하는 것이 많았기에 이 시기에 컨설팅을 받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설턴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피드백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계속 이어가며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설팅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계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립능동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다진

첫 보육교사가 되어 현장에서 일한지 1년이 지나고 유아반 담임교사가 되었을 때 항상 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아들과 다르게 유아들은 의사표현도 제법 뚜렷하게 나타나고 서로의 감정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다 보니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에 개입을 할 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놀이상황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어떻게 교사가 원만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때마침 원장님의 추천으로 '1:1 교사 수업컨설팅' 이란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합교육, 1·2차 현장관찰, 소그룹 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고 현장을 방문해주셔서 현장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더 나은 보육교사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하였습니다.

보육컨설팅 수업을 신청하신 모든 보육교사들이 모여 관련 자료와 PPT를 보며 프로그램 진행방향과 하위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시던 교육자께서 선생님들께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해주며 교육하셨고 앞으로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후에 다양한 어린이집에서 같은 지역, 비슷한 연령의 선생님들을 대략 4~5명 내외로 조가 구성이 되고 담당 컨설턴트인 교수님이 배정이 되어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컨설턴트)께서 오전 실내 자유놀이 상황을 1시간 이상 관찰 후 1시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간·일일 보육계획안을 보시며 교실의 환경구성을 살펴보셨고 놀이상황에 개입 없이 관찰하셨습니다. 관찰이 끝난 후 교수님과 관찰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되었는데 관찰 당일 날 유독 한 명의 유아가 여러 또래들과 다툼이 잦았고 교수님께선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셨습니다. 유아의 가정환경, 기질, 유아 부모의 환경적인 면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고 유아가 자란 환경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부모다 보니 부모의 가정환경과 성격, 직업적 특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는 생활기록부와 면담자료, 유아 발달체크리스트 등이 중요한 자원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사 가치관은 지식, 기술, 태도적인 면에서 항상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6세의 발달의 특징에 관한 자료를 보며 저의 상위목표를 정해보고 피드백 시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갖기 전 한 가지 토론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주제는 ‘문제 행동의 해결이 필요한 아동의 해결방안’이었으며 관련 사례를 1~2가지를 준비하여 각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모여 토론 진행자를 선정 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사례에 대한 각자만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는 의사표현이 거의 없는 유아가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줘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래들과 놀이할 때엔 어느 6살 또래와 다름이 없었으나 기본생활습관(손 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인사하기 등)면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유아여서 고민이 항상 많았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은 교사들과 교수님은 다른 상황 혹은 가정에서의 모습을 여쭙어보았고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유아의 가정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다른 교사들의 ‘편식이 심하여 맨밥만 먹는 영아’, ‘엄마와의 애착이 바르

게 형성되지 못하여 심한 등원거부를 하는 유아', '스마트폰 중독 유아'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이야기 나왔고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며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교수님께서 TV프로그램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사연을 준비해 오셔서 시청 후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 후 오은영 교수님의 해결 방안도 참고하여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소그룹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방문 컨설팅 때와 크게 다름없이 사전에 보내드린 월안, 주안, 일안을 참고하시며 교실 각 영역의 교구와 환경을 둘러보셨으며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시며 대략 1시간정도의 관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때와는 다르게 유아의 활동지를 모아둔 활동자료집, 자유선택계획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기록장을 살펴보고 각 종 자료를 통한 피드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선 1차 컨설팅과 소그룹 모임 후 변화한 점에 대해 여쭙어보시며 피드백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일과를 진행하며 그에 대한 목표, 하위목표를 지식, 기술, 태도적인 면에서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에 대해 중요함을 강조하셨고 더불어 실제로 저희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일과를 함께 보며 교사가 정한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교실의 7개의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목표를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이유, 실천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교사와 유아,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보며 피드백이 이루어졌습니다. 피드백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해소법도 중요하다 하셔서 컨설팅 진행 동안의 제 심리적인 변화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물어보시고 2차 컨설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현장방문, 소그룹 컨설팅 때 마다 강조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환경, 성격 파악, 관계 맺음도 중요하지만 교사 본인의 심리상태, 보육가치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각

자가 처음 보육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교사가 되리라 다짐하였는지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육교사가 되었을 때 그저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연령이 변하고 6세 유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니 나의 말 한마디나 표정, 행동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애정 혹은 낯설음으로 느껴질 수 있고 저 또한 유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상처 혹은 행복을 느낀다는 점이 크게 마음에 와 닿아 안전하게 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교사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유아에게 훈육을 하기 전 안아주고 보듬어 주며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직장 동료들에게도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스트레스와 걱정을 해소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2차 컨설팅 후로 각 영역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새기며 부족한 활동, 흥미 있거나 없는 놀잇감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저 또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을 살펴봄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그룹 컨설팅을 진행하며 문제행동 유아의 사례에 대한 여러 교사들과 교수님의 조언, 해결방안을 듣고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유아의 행동이 다소 걱정은 되나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기다리고자 한다고 하셔서 담임교사인 저라도 유아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유아가 교사에게 욕구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작은 목소리로라도 표현하였을 때 하이파이브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알려주고 다시 한 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이어도 자신의 의사를 전보다 큰 목소리로 원하는 것을 언어로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부모님께도

이를 알려드리자 가정에서도 유아가 전보단 표현이 풍부해졌다고 감사하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발전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때 기특함과 뿌듯함을 느끼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유아들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도록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립삼봉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진주

컨설팅이 내게 주는 힘

원장님의 권유로 1:1교사 수업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설레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준비를 하면서 교수님과 통화를 하고 날짜를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7월 11일 그렇게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인사를 나누고 수업에 들어와 앉아 계시는데 아이들은 어찌나 새로운 사람이 온 것을 아는지 싸인펜으로 그린 그림에 분무기를 이용해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지 알아보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즐겁게 분무기를 뿌려대는 바람에 책상과 바닥은 물천지가 되고....상호 작용은 하지만 새로운 선생님을 바라보며 더 신나게 물을 뿌리는 우리 천사들에게 녀다운이 되고 말았네요...분무기에 물이 다 소진될까 까지 말이죠....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흘러간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 교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상호작용을 잘 보았어요. 많이 긴장하셨죠? 선생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확장하여 놀이 하여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자율성을 주고 영아가 원하면 더 놀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손님이 계셔서 더 신나게 놀이 한 것 같아요.” 이야기 하며 나의 모습을 이야기 해주시고 아쉬웠던 점을 너무 잘 이야기 해주셨어요. 종이를 교실에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현관 옆 벽에 종이를 붙이고 그림을 그린 후 자유롭게 분무기를 사용하면 옷이 젖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바닥도 젖을 일이 없으니 더 재미있게 놀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말에 “아하!!!”하며 제 무릎을 치고 너무 감사하

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시행 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는 최고였어요. 모두 자유롭게 즐겁게 놀이 하였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그룹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답니다. 현장방문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반갑고 즐겁게 느껴졌답니다. 나를 포함해 다섯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1차 현장 방문이 어땠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쉬웠던 부분과 방문 후 달라진 점도 이야기 해보았어요. 모두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흐뭇한 이야기들 뿐이었답니다.

신규 선생님은 경력선생님과 투담임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신규 선생님과 투담임을 하는 상황에서 나의 입장이 아닌 신규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듣는 듯 공감의 더 되더라고요. 우리 신규 선생님도 저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바로 다음날 원에 가서 우리 신규 선생님 “잘한다” 응원 많이 해주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영아 관련 하여 준비해주신 자료를 배우며 한번 더 영아들의 입장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답니다. 교실환경도 신경 쓰고 나름 마음에 준비도 단단히 먹고 아이들과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고 교수를 만나는 순간 왜 또 일이 생기는 걸까요?

즐겁게 나가는 산책에 보슬비가 내려 교실에 있는 우비를 입고 나가는데 미리 계획된 상황이 아니여서 우왕자왕 어수선.....그래도 잘 입고 나가는데 시간은 지체되고 아이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 서로 이곳저곳 자유롭게 둘러보고 상호작용은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멋있게 평소처럼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가 봐요. 또 다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지난 후 교수님과 대화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는데 계획한 것과 당황한 상황대처에 대해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컨설팅을 하면서 경력이 쌓여 아주 조금은 느슨했던 저를 아주 탱탱하게 다시 잡아 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

지만 부족했던 부분과 단어 선택부분, 또한 다른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육교사로서의 고충을 이야기 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아주 보람되고 값진 시간이 었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제게 언제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아직 컨설팅을 받지 않으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꼭 한번 제가 느낀 이 기분을 느껴보시길 추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립서부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임새봄

저는 전문대학 보육과를 졸업한 후 2년간 유아반을 지도하며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활동과 친구와 다투는 아이, 선생님보다 더 큰소리로 친구들의 관심을 끄는 아이 등 유아간의 문제 상황에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도방법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바르게 앉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흥미 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 교사 수업컨설팅을 받은 동료교사의 추천과 원장님의 권유를 받고 저 또한 3년차 교사로서 한걸음 더 성장하고자 1:1 교사 수업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3세 담임교사입니다. 교사 수업컨설팅을 통해 유아들에게 적절한 문제 상황 지도 방법 및 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해 도움을 받으며 유아반 담임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싶어 1:1 교사 수업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1 교사수업 컨설팅을 받기 전에 수원여자대학교에서 교사수업 컨설팅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수업컨설팅에 대한 안내가 아닌 교사의 역량 및 자세, 보육과정 운영과 상호작용, 자유선택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올바른 보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

었습니다.

두 번째로 몇 달 뒤 교사수업 컨설팅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사수업 컨설팅 소모임을 통해 다른 어린이집교사들과 보육운영 및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환경에서의 보육운영 시 마주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방법 및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1차 현장방문 1:1 교사 수업컨설팅, 2차 현장방문 1:1 교사 수업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차 현장방문 1:1 교사 수업컨설팅을 받기 전 가장 먼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올바른 상호작용에 대해 찾아보고, 생활주제가 진행되는 주간교육계획안과 일일보육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교수 방법과 활동 전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상호작용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고, 주제에 대하여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보육계획안을 작성한 뒤 원내 동료선생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업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컨설턴트 교수님께 메일로 계획안을 전달하였는데, 더 나은 수업을 위하여 주간교육계획안의 활동과 일일보육계획안의 목표까지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현장방문 컨설팅 때에 보육 운영에 일과를 관찰하고 관찰을 토대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과 더 나은 보육실 환경구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관찰 및 피드백을 받은 한달 후 2차 현장방문 컨설팅이 이루어져 2차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1차 때 받은 피드백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올바른 보육운영방법과 더 나은 교사로 발전하고자 하는 책임감과 목표의식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 교사 수업컨설팅을 마치고 ‘잘함과 못함’을 생각하면 아쉬움만 가득

했지만 우선 “끝났다”는 것에 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1:1 교사 수업컨설팅 사후 교사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 번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되짚어서 반성하는 자기 평가 과정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재평가 과정이 양질의 수업을 하는데 있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되었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과 반성적 태도가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교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었고, 발전하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며, 영유아 지도 시 보다 전문적인 지도 방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며 아이들과 성장해 나가는 멋진 보육교사가 될 것입니다.

시립오포능평어린이집

보육교사 손민정

이제 갓 졸업한 초임 보육교사인 저는 문제 행동지도, 식사지도, 배변 등 등 처음으로 하는 유아 지도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고, 하루일과가 버거울 정도로 이론으로 접했던 모습보다 더욱 많은 것들이 요구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일화 중 가장 어려웠던 일은 학기 초 적응기간에 여러 유아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을 때 교사 또한 원에 적응을 하고 있는 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아들과의 문제뿐 아니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아직 대화의 기술이 미숙해 실수를 연발하기도 하였고, 학부모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재빠르지 못하거나 센스 있게 대처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생겼고 더욱 막막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동료 교사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듣고 적응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교사들마다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이 달라 어떤 대처방법이 더 올바른 대응인지 혼란스러웠고, 또 반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동료 교사들에게 들었던 다양한 조언들이 상황에 따른 반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 해야될지 더 막막해지며 어려움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평소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자면 늘 유쾌하고 명랑하며 밝은 모습의 사람인데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두운 모습이 보이며 자존감이 떨어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동료들도 그런 제 모습이 걱정이 되는지 많은 응원을 받았지만 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까봐 더 많이 웃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지만 내면의 제 모습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고, 항상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 오전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1:1 교사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설

명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편안해지며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이 들었고, 자진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교육 당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육 날에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고, 기쁜 마음으로 집합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2시간 남짓 교육을 들었는데 분명 교육내용은 유익했고, 꼭 나에게 필요한 교육이었지만 교육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왜인지 모르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며 나의 이런 마음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현재 이론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늘 이론과는 다른 문제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는 나에게는 ‘방문컨설팅’ 교육방법이 잘 맞을 것이라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 해주시며 저를 다독여주셨습니다. 한 달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원장님의 믿음,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피드백과 실무 경험, 또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들을 기반으로 삼아 저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방문컨설팅 날이 다가왔습니다. ‘방문컨설팅’ 당일 교수님께서 방문하셨고, 교수님께서서는 컨설팅 진행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고, 한시간의 시간동안 저를 꼼꼼하게 관찰하셨습니다. 처음 몇 분동안은 누가 저를 계속 보고 있는 시선이 불편해 많은 긴장이 되었고, 떨리는 마음에 평소 하지 않았었던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평소의 내가 되어 일과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현장관찰이 끝난 뒤 교수님과 마주했을 때 ‘아, 많이 지적을 받겠구나.’ 생각과는 달리 교수님께서서는 저를 격려해주셨는데 그 말이 그동안 힘들었던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왈각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듯 교수님께서서는 저를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뒤, 일과 중 유아들과의 갈등상황이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교사가 유아를 대하는 모습이 진실성 있고 애정 있는 모습을 칭찬해주시며 평가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또 학기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기본생활 질서가 매우 잘 잡혀있었다며 교사의 역량을 높게 살피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가장 알고 싶어 했던 현재 문제점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교실환경에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유아들이 놀이할 때 주제에 맞는 상황 연출이 부족하다고 알려주셨고, 교사가 그간 어려움을 겪으며 궁금해 했고 알고자했던 문제 상황 들을 짚어주시고, 이야기해주시며 해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며 유아들과 함께 있는 교사의 모습이 행복해보이고 유아들도 교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즐거워 보인다고 말씀해주시며 2차 방문을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되며 나만의 길을 찾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환경구성을 시작으로 사소한 부분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꿔나가며 처음 바꾸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아들이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성취감을 느끼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바꿔보았습니다. 그 결과 너무 많은 변화에는 유아들도 혼란을 느끼는 것을 알았고, 주제에 맞는 적당한 변화는 유아들의 새로운 놀이를 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주고, 유아들의 표현이 다양해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받았던 대로 변화해가며 적응을 해가던 중 또 다른 의문이 생겼고 소그룹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컨설팅’은 6명의 교사들로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교사들이었고, 그로 인해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고민을 서로 토의하니 좋은 상호작용방법들이 많이 떠올랐고, 교수님께서도 교사들의 1차 컨설팅 후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계속 연구하며 저에게 알맞은 교수방법을 찾아보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2차 방문컨설팅까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이 끝

이 난 뒤 교수님과 마주하여 피드백을 진행하였고 교수님께서서는 3개월 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운을 떼셨습니다. 미흡했던 교실환경구성이 현재는 바로 주제를 알 수 있게 변화했으며 유아들이 놀이하는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주제가 드러나 교육목표가 분명해졌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직 유아들과 상호작용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교사가 인식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긍정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교사 생활을 지지해주시며 컨설팅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딪히며 잊어버렸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으며,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보육이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왜 보육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보육교사의 '길'에서 흔들리는 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립인덕원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중분

학교 졸업 후 인덕원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보라반(만2세)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사 생존기로 현장 경험이 없는 제가 수업활동에 어려움을 보이자 원장님께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권유해 주셨고 1:1교사 수업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방문교육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방문하신 교수님께서 편하게 해주셨고 평소처럼 영아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오전 교실운영에 대한 관찰을 해주셨습니다. 관찰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잘못된 교수방법과 상호작용에 대해 상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영아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영아수준에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컨설팅 진행과정은 집합교육 → 1차 현장방문교육 컨설팅 → 소그룹워크숍 → 2차 현장방문컨설팅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집합교육 주요 내용은 1:1 교사 수업컨설팅 기본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교사의 역량 및 자세, 보육과정 운영, 상호작용 등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2단계는 1차 현장방문컨설팅은 컨설턴트가 교사의 교실운영을 관찰하고 보육과정운영과 상호작용에 대한 1차 수업관찰의 피드백이 진행되었습니다. 3단계는 소그룹 워크숍으로 진행되며, 컨설턴트와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이 함께 보육계획안 및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수업방법과 현장에서의 상호작용 사례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현장방문컨설팅은 1차 현장방문컨설팅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스스로 체크해 보고 교실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며 교사로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덕원 어린이집에서 꾸준한 동료장학을 통해 원장님과 선임교사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교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기초로 교실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아존중을 기본으로 한 교사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을 실제적으로 익힐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라반(만2세) 친구들과 즐겁게 일과운영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아를 존중하고 영아수준에 맞는 보육계획을 세워 영아가 주도적으로 각 흥미영역에서 놀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름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정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컨설팅 교육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염려되었던 부분은 항상 영아반 담당을 교육하였던 교사로서는 유아반 담임을 맞게 되어 어떤 부분을 더 향상 시키고 지원해 줘야하며 어떤 방향으로 유아에게 지원을 해 줘야하는 것에 고민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유아의 기질을 알고 기질적 성향을 파악하여 교사는 놀이나 욕구에 참여하여야한다. 부모님의 기질도 파악하여 유아의 부모도 상호작용의 방법을 안내하여 함께 지도해 나아가도록 지원한다. 부모님의 자란 환경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유아의 가정환경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양육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유아의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문제행동의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할 때는 직접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반 아이들을 칭찬을 하는 것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와서 노력하려고 하는 유아들을 전반적으로 칭찬하고 잘하는 것을 격려하여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트랜시스동탄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수정

처음으로 만 1세 담임교사를 맡게 되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1:1 교사수업컨설팅 교육을 통해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부분들, 미흡한 부분,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 부분 등 교수님께서 확실히 집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보육 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전과 아이들의 놀이 속 자유를 인정하는 데 정확히 구분을 짓는 것이 어려워 많이 고민했는데, 아이들의 옆에서 놀이를 그저 방관하지 않고 함께 놀이하는 입장이 되어 살펴보니 위험한 상황과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그저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태도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학 교육에 열정이 많으셨습니다. 수학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만 1세 영아는 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여 수학적 경험을 단순 수 세기나 시계 살펴보기 등으로 아주 조금씩 하곤 했습니다. 교수님의 피드백 내용 중 '수학적 경험'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고, 하루일과를 함께 나열하며 알아보거나 일상생활 중, 놀이 중 숫자를 이용한 단순 놀이 경험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피드백에 맞추어 함께 수를 세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수 세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1에서 10까지 금방 수를 세기도 했고, 이야기를 할 때는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리며 나열을 하는 등 놀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수학적 사고가 가능해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중 반복되는 단순

경험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의 달라지는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내용과 함께, 각각의 교사가 겪는 어려움, 1:1 교사수업 컨설팅 교육 후 달라진 태도 혹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 원의 상황과 교육 후 달라진 내용에 대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보며 공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좋았다, 혹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1 교사수업 컨설팅 교육을 통해 익숙해져 있던 교사로서의 생활 패턴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잘못된 부분도 인지하지 못한 채 쳇바퀴 굴러가듯 진행되었던 하루 일과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에 더욱 신경 쓰되 자유로움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놀이에 참여하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지원해주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며 교사로서 더욱 성장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조금 더 즐거운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만족스럽습니다.

컨설턴트 강혜경

교사수업컨설팅을 마치며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지금부터 ‘코~ 자자’ 하면 잠들었다가,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듯 수면습관도 아이들마다 다르다. 이처럼 영유아들은 연령에 따라 발달적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다르다. 그 이유는 영유아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유전, 영양상태, 성별,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결과로 성취된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정신분석, 생태학적 이론 등. 이러한 이론들은 영유아들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유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특히 영유아들의 발달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영유아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는 건강한 자아발달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변화 및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중요할까? 그것은 교사의 계획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부분의 영유아교육기관들은 보육적 환경을 계획하고 제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 영유아에게 제공할 경험과 수업들은 교사에 의해 계획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유아의 발달 영향력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수업과 여러 활동에서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교사와 유아교사는 영유아들을 보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왜 어려움을 겪을까에 대한 의문은 ‘영유아의 발달 및 특징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수업을 할 때와 영유아를 위한 활동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로 인해, 현재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컨설팅 장학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양해지면서 교사 및 기관 구성원들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적 컨설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 교사컨설팅도 영유아의 발달 및 특징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사들의 문제점을 알고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즉, 우리의 보육 및 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영유아의 발달, 행동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알아보며,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 및 교사 수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매뉴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적 입장이지만 본 컨설턴트는 영유아 발달, 영유아교사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면서, 관련된 지식을 재학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당연히 관련된 지식에 본인이 전문가가 되어야 남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바쁜 일정의 연속이지만 시간을 쪼개어 학습을 했다. 재학습한 것을 체계화 및 본인의 것으로 만든 후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사들을 집합한 후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때 우선 실시한 교육은 유아의 발달 및 특징과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교육을 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영유아발달과 좋은 수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기본을 갖추기 위함이다. 이후 교사들이 사용하는 보육년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을 9월과 10월, 2달에 걸쳐서 분석을 2회씩 하였다. 그리고 난 뒤,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양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텍스트 분석과 현장 방문, 교사의 수업, 보육계획안의 분석,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교사들이 제출한 년, 월, 주 일일계획안, 보육계획안을 살펴보았다. 살펴보면서, 계획안의 주제와 목적, 활동과 평가, 사후활동과 통합일지작성요령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보았다. 우리의 영유아교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때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였다. 또한, 교사와 영유아를 둘러싼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때 사용한 컨설팅 도구는 현장방문 점검 체크리스트이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살펴본 뒤에 교사들과 의사소통을 나누었는데, 그 주 내용은 “보육계획안의 텍스트에 기반한 수업활동, 내용분석에 대한 교사들과의 피드백”이었다. 즉, 교사들이 수업활동 내용에 교실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가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예를 들어, 각 영역별에 따른 교구 세팅이라던가, 놀이 활동 시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이들의 문제행동 발생 시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며,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에 대한 상호작용의 방법이 무엇인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그건 바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다.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유아교육기관 교사들과의 소그룹 토론을 1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사후 컨설팅을 실시했다. 즉, 교사들이 제출한 2번째 년, 월, 주, 일일계획안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1번째 컨설팅 시 수업관찰의 피드백 내용을 토대로 텍스트와 수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찰하였다. 이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여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어떠한 생각과 의견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고민한 것을 통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컨설팅 필요 요소를 추출하였고, 교사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실시하면서, 교사수업의 현황, 교사수업의 진행 및 절차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에, 교사 개인별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아교사 개인별로 지도를 하였고,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취합한 후 해결점을 모색해보았다. 결국 “교사 전문성 향상”과 “교사 수업 비

전 제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1차 구성안에서 교사 전문성 향상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였고, 2차 구성안에서 교사 수업 비전 제시를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구성한 자료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꾸준히 살펴본 후, 본 1차 및 2차 자료 구성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에게 제시한 내용은 “보육계획안의 년, 월, 주, 일일계획안 의해 합리적으로 유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의 발달과 특징을 반드시 숙지한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에서 상황 별, 기질 별, 부모 양육유형 별에 따른 상호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사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교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 수업 컨설팅을 보장해야 한다” 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자료가 보육 및 영유아교사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본인이 컨설팅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부모”와도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물며, 우리 교사들은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교사들의 보육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일단 보채고, 울기까지 하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 밥을 먹였고, 이와 병행하여 양치질을 시켰으며 아이들을 겨우 겨우 재웠다. 잠든 아이들이 깨지 않게 블라인드를 다 내린 깜깜한 방, 그제서야 보육교사들은 상을 퍼 삼삼오오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식사하는 동안에 특별히 나눈 대화는 따로 없었다. 오전 업무만으로 이미 지쳐보이는 보육 교사들의 얼굴은 내일도, 모레도 이같은 고됨이 반복될 것이란 생각마저 드니 한 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교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영아인 경우 우유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다 다른 아이들을 제 때 돌봐야하는 시간들로 메꾸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 와중에 옆 반 교사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대신 메워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분의 시간을 쪼개어 교실 꾸미는 일, 교재 교구

를 제작하는 일, 회의, 청소하는 일, 또 꽤 많은 행정 업무처리까지 모두 다 보육 교사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은 하나 같이 때 쓰고, 우는 아이더라도 그렇게 커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일의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사회성이 잘 발달한 모습을 볼 때 즐겁다고 했다. 또한 부적응 아이들이 교사의 도움으로 놀이와 수업에 점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가며 우는 횟수가 줄어드는 모습에서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며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실을 꿈꾼다. 그러나 교사들을 둘러싼 교수환경은 열악하다. 이로 인해 교사도 감정적인 사람인지라 가끔은 판단이 흐려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려하지 않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는 모습도 발견이 되어져 반성하는 모습도 비추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표현하고 생각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의 눈높이로 유아를 평가하여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시간을 반복하는 모습도 자신에게서 발견되어 교사로서 과연 이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도 생각을 해 보았다고 토로하였다.

본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의 컨설팅 후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들은 오늘의 자신을 뒤돌아 보면서 '어떤 교사였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교사는, "교사가 되어 늘 실천하고 이루고 싶었던 꿈인 대학에서 배운 구성주의적 교육방법을 머리 속에 숨겨두고 따라하고 싶지 않다던 주입식 교육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여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그동안 꿈꾸던 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 해 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다. 그러나 교사수업 컨설팅이 있어서 자신이 교사로서 전문성을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부끄러운 자신

을 뛰어 넘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다시 신발 끈을 맨다고 하였다. 만2세 교사는,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이었다. 부족함 점을 외면하며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부족함 점을 들추어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교사에게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 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교사 자신이 유아들에게 “어떤 교사였는가”를 반성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로 만3, 4, 5세 교사가 마무리하는 말을 전하였다.

이처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교사들을 보며 본 컨설턴트가 깨달았던 점은 바로 영유아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시간과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보았다. 즉,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의 원장님과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어머니 보다 더 어머니와 같은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참된 진정성을 확인하였다. 컨설팅하면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확인된 교사들 모습은 본 컨설턴트에게도 매우 값진 마음과 기회임을 인식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영유아들에게도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모든 유아들의 부모님을 대표해서 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도 교사수업 컨설팅이 정책적으로 지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끝으로, 이 컨설팅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많은 도움과 응원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사 수업컨설팅이 갖는 의미는 영유아교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영유아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며, 교사컨설팅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욱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력 제고

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영유아 교육기관과 교사의 수업이 한층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컨설팅에 조력해 주시며 의견을 제공해 주신 모든 유아교사 분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쓰신 센터의 직원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컨설턴트 정경미

2019년 개정누리과정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갖는다. 학습자와 학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019년 컨설턴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명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상호작용능력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동시에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에 정답이 있는가, 무엇이 상호작용 결과를 의미있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낯설음과 긴장감, 그리고 기대와 설렘을 안고 컨설팅을 신청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다.

자원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은 큰 부담감이었으리라. 모든 선생님들은 규모, 구조, 분위기, 등 같은 것 하나 없는 어린이집 환경에서 아이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선생님들이 눈에 띄었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상호작용 내용과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소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유아에게 활동을 권유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유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혹은 유아가 선택한 결과까지 염려하느라 말끝을 흐리거나 부탁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교사가 권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유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시작하라고 제안하였다.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상호작용의 반복으로 그 효과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태도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호작용에 접근하고 있었다. 영유아의 말에 “와! 좋겠네!”, “그래, 잘했다.” 등 피상적인 칭찬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유아와의 감정교류와 소통은 거의 없이 무표정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지루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눈을 맞추고 “이걸 만들고 기분이 좋은 거구나!”, “열심히 만들었네. 보기 참 좋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언어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셋째, 자신의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놀이에 방해가 될까봐 주저하는 경우였다. 놀이중심 및 유아중심에 대한 오해로, 관찰자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흐름을 깰 것이라 생각하고 유아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유아중심 및 놀이중심에서는 민감성, 놀이맥락 파악, 좋은 질문법 등을 통해 유아의 놀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여러 대화 및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아이들의 놀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별하면서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권유하였다.

때로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때로는 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부드럽고 밝게, 때로는 단호하고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이러한 교사의 상호작용 방식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아이에게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는지, 혹은 어떤 성향을 발달시키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를 잘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사시절부터 지금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질문 중 하나이다. 최근에 깨달은 것은 답을 찾지 못함이 '답'이라는 사실이다. 분명한 건,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교사도 영유아도 성장할 수 있으며, 교육적인 시도와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에게, 영유아에게 의미있는 것들이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교사들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컨설턴트로서 질문을 던지고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이 일 또한 나에게 의미있는 일 이었다.

완벽한 교사는 없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는 교사가 아닐지 모른다. 내가 만난 모든 선생님들은 작은 사안 하나에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실행으로 옮겨 변화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교실을 타인에게 개방하고 경청함으로써 새로운 나 자신에 직면하는 용기를 보여 주신 모든 교사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2019-06호

놀이중심 보육과정 시범어린이집 운영
1:1 교사 수업컨설팅 사업 안내

2019년 12월 인쇄

2019년 12월 발행

발행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발행인 홍원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전 화 031-258-1485

인쇄처 디자인나무 032-327-6109
